

공동체 소식



## 연중 제 13주일

하느님, 저희를 부르시어 거룩한 신비를 거행하게 하시니, 하느님 사랑의 힘으로  
저희를 더욱 자유롭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더욱 충실히 따르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제들을 섬기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가정
-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율리안나) 가정

7월 기도지향 : 박재천(알베르토), 박계숙(헬레나) 가정 / Michael Gorman, 한교숙(헬레나) 가정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은 예수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습니다.

주간 전례

- 7/03(수) : 성 토마스 사도 축일
- 7/05(금)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첫 첨례 신심미사례

- 첫 목요일 미사 : 7/4(목) 오전 10시
- 첫 금요일 미사 : 7/5(금) 오전 10시, 십자가의 길
- 첫 토요일 미사 : 7/6(토) 오전 10시, 미사 30분전 묵주의 기도

셀 기도 모임

- 일시 : 화요일 오후 7시 미사 후 /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회관

‘묵주기도의 모후’와 ‘평화의 모후’가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일치하는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사도 토마스)을 맞이하여 6월 30일 11시 중심미사 때, 조출한 축하 행사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본당이 신부님께 드리는 정성은 공동체의 화합과 끊임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기타

- 6월부터 저녁미사 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앞당깁니다.
- 7,8월 향복사는 없고, 시중복사만 있습니다.
- 영명축일 잔치에 애써 주신 평협(전례분과, 구역분과)에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209	55	180/197	400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안광민(야고보)
	차서은(세라피나)	김준영(요 섹)
차주	안광희(크리스토퍼), 정예찬(미카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수연(율리안나)	김태중(예레미야)
		김민정(리 디 아)
차주	최은미(아네스)	류기범(요 섹)
		신혜경(마 리 아)

애찬 봉사자

금주	다 함 계 (주임신부영명축일잔치)
차주	손정화, 한춘희, 황의정, 양정희, 유경애

헌금 봉사자

금주	문석찬(요 섹)	최은미(아 네 스)
차주	김시연(엘리사벳)	박희영(가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6/16	95명	417불	1,790불
06/23	73명	306불	1,000불

미사시간

- 주 일: 11:00 AM
- 화요일: 7:00 PM
-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유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중간 지점에 다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의 길을 오롯이 걸어왔는지 되돌아보면 남은 반년 동안도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을 걸어가기로 거듭 다짐합니다.

### 성화해설

성 세바스티아노  
(페루지노, 1493년, Oil on wood,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페루지노의 작품 <성 세바스티아노>는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순교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화살을 맞은 성 세바스티아노에게서 어떠한 고통이나 일그러진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짓는, 환희에 가득 찬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죽음을 넘어 하느님의 나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1열왕 19,16-19-21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나섰다. >



주 님 당 신 은 저 의 기 업 이 오 이 다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이 몸이오이다.  
주님께 아뢰오니 당신께서는 저의 주님  
주님께서서는 저의 기업 제 잔의 몫이시니 저의 제비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

○ 깨달음을 제게 주신 주님을 가리오니 밤에도 제 마음이 저를 일깨우나이다.  
주님을 언제나 제 앞에 모시오니  
제 오른편에 계시옵기 흔들리지 않으오리다. ◎

○ 그러기에 제 마음 즐겁고 영혼은 붐놀고 육신마저 편안히 쉬오리니  
제 영혼을 지옥에다 버리지 않으시리이다.  
썩도록 당신 성도를 아니 버려 두시리다. ◎

○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흐뭇할 기꺼움을  
당신 오른편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보여 주시리이다. ◎

제 2 독서 : 갈라 5,1.13-18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 음 : 루카 9,51-62

<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

# 세 마

## “지독한 불안정 속에 안정”



우리 삶이란 안정된 것이라곤 없습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도 어느 하나 안정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마저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적 평화나 위안을 맛보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검은 떡구름 속에 갇혀 있기 일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고속의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을, 그것도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입니다. 때론 그 길마저 끊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저 불안정하고 힘들고 괴롭기만 하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생을 마감하는 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머리 하나 제대로 낼 곳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따뜻한 기운과 힘이 있음을 알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빛과 기운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요하지만 힘있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몸뚱어리와 자기 생각과 느낌만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 욕심을 비롯한 자기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빛과 기운을 가려 버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만큼이나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빛과 기운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리고 덮어 버렸음에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비추고 살려내는 그 빛과 기운으로부터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공부요 수행입니다. 그

러기 위해 간단없이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감싸고 돌봐 주고 키워 주고 있는 그 빛과 기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비감 때문입니다. 이 빛과 기운이 바로 성령의 현존이요 활동입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의 현존과 활동에만 온 마음과 힘을 쏟을 때, 비로소 불안정하기만 한 현실 속에서 휘청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지, 무엇이 덜 그런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게 되며, 지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할 힘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길 수 있게 되고,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마저 뒤로 한 채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온전히 투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라면 모두 이런 태도로 불림을 받았습니 다. 오직 성령께만 마음을 모은,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투신은 우리 모두의 의무요 권리입니다.



# 마중물

## “희망의 주님”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그는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실”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 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절망이란 자기의 상실이며 하느님과의 관계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망을 통해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신앙의 힘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성 절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괜찮은데 남과 비교하고 남과 겨루면서 만나게 되는 벽입니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좌절이 바로 상대성 절망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웃, 친구들, 극복할 수 없는 사회조직, 울

라가는 물가와 앓아지는 월급봉투, 잘 나가는 사람들의 큰 웃음소리, 향상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또는 퇴보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주저앉게 되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은 바로 절망의 독화살에 맞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다가올지라도 그 절망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절망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 희망의 주님이십니다.



# ‘신앙의 해’ 교육자료

## 제 3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 42.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예견하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루카 9,51).

이 결심은 예수님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 반복해서 당신의 수난과 함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루카 13,33) 하고 말씀하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57항).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서 살해된 예언자들의 죽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당신 곁에 모으시기 위하여 끈질기게 부르십니다.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마태 23,37ㄴ).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다시 한 번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루카 19,42).

예루살렘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께서서 구원을 가져오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합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구원을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임금님”(시편 24[23],7-10)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즈카 9,9) 당신의 도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교회의 표상인 시온의 딸을 계약이나 폭력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는 겸손으로 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린이들과 ‘하느님의 가난한 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 줄 때처럼 환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시편 118[117],26) 하는 그들의 환호를, 교회는 주님 파스카의 기념을 시작하는 성찬 전례의 ‘거룩하시도다’에서 다시 반복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59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

